

북한인권법 즉시 시행하고, 대북전단금지법 즉각 폐기하라!

- 북한에 암흑을 가져온 이른바 광명성절을 규탄한다!

일시 : 2022. 2. 15(화) 11:30

장소 : 청계천 베를린 광장[중구 청계천로 83(장교동 1번지) 삼일교 남서쪽 한화빌딩 앞]



남북한 우리 대한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그럼에도 북한정권은 이른바 백두혈통 수령독재로 북한을 인권지옥으로 만들었고, 문재인 정권은 보편적 인류 양심을 해치는 반인도범죄의 공범이 되고 있다. 북한인권법 시행을 6년째 거부하고, 탈북청년을 강제북송하는가 하면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다.

독일은 나치의 패망으로 분단된 열악한 환경에서도 친서방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대가 없는 지원 불가, 잘츠기터 기록보존소 등 기본원칙들을 일관성 있게 고수함으로써 1989년 베를린 장벽을 부수고 1990년 통일을 이루었다.

헌법과 시대사명에 따라 자유통일을 염원하는 우리는 베를린 장벽 일부를 원형 그대로 가져와 조성한 청계천 베를린 광장에서 외친다.

1. 사문화된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정상 집행하라!
1. 위험적인 대북전단금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1. 북한에 암흑을 가져온 이른바 광명성절 80주년을 규탄한다!

2022. 2. 15.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